"일기장 보는 느낌… 소중히 다루고파"

탈북민 다룬 '하나코리아' 덴마크 쇨베르 감독 영화
김민하, 탈북 여성 혜선 역 "대본 읽고 큰 책임감 느껴 탈북민 시선 바꾸고 싶어"

영화 '하나 코리아' 속 한 장면. 시소픽쳐스·트리플픽쳐스 제공

"마치 주변 사람의 일기장이나 편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많이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함부로 허투루 하거나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오는 8일 개봉하는 영화 '하나 코리아'에서 탈북 여성인 주인공 혜선 역을 맡은 배우 김민하는 처음 대본을 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민하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 만큼 픽션보다는 다큐처럼, 지독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덴마크인인 프레드릭 쇨베르 감독의 '하나 코리아'는 북한 양강도를 떠나 남한에 온 탈북 여성 혜선이 서울살이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쇨베르 감독은 30여 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 속에서 혜선이 북에 두고 온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까지 한 탈북 여성이 쓴 편지를 그대로 차용했다.

김민하는 "많은 분이 실제로 겪은 일을 제 몸을 빌려서 전달하는 느낌이었다"며 "집중력을 놓지 않고, 이 인물(혜선)로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극 중 혜선은 간호사라는 꿈을 위해 공부하면서도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된 삶을 사는 인물이다.

김민하는 "제가 탈북민의 생활과 탈북 과정을 감히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면에서는 '나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일들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 자체가 혜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관객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혜선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효린 씨는 지난해 '하나 코리아'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을 당시 영화를 관람한 뒤 '내 인생 전체가 이해받은 기분이 든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한다.

영화 포스터. 시소픽쳐스·트리플픽쳐스 제공

김민하는 이러한 소감에 대해 "혹시 제가 (실존 인물의 모습을) 해치지는 않았을지, 상처를 드리지는 않았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다행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아직도 탈북민에 대한 시선이나 선입견이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시선을 좀 바꾸고 싶었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맛 대결 넘어… 변주 나선 '셰프 예능'

위장취업 '언더커버 셰프'·매출승부 '스트릿 레스토랑…' 새 키워드·스토리 중요… "'미디어용 셰프'는 경계해야"

tvN '언더커버 셰프' 속 샘 킴, 정지선, 권성준 셰프(위쪽부터). tvN 제공

바야흐로 '셰프 예능' 전성시대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을 기점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채널을 가리지 않고 요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의 셰프 예능은 단순한 맛 대결이나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쿡방'이나 맛집 탐방 등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변주하는 모양새다. 특히 '위장 취업'이나 '실전 장사' 같은 이색 키워드를 결합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5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언더커버 셰프'는 샘 킴, 정지선, 권성준(나폴리 맛피아) 등 국내 정상급 유명 셰프들이 정체를 숨긴 채 해외 현지 식당에서 주방 막내로 일하는 과정을 그린 관찰 예능이다.

한국에선 내로라하는 베테랑 셰프들이 현지 주방에 적응하며 초심을 되찾고, 5일 이내에 자기 요리를 메인 메뉴로 올려야 하는 미션을 놓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한 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감동을 전한다.

첫 회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2.3%의 시청률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지난 2일 4.6%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21일 베일을 벗은 tvN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는 맛 평가 대신 매출로 승부를 가르는 실전 장사 서바이벌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했다.

이연복, 유방녕, 에드워드 권 등 요리 대가부터 홍석천 등 연예인 출신 외식업자, 재야의 장사 고수 등 20여 명의 출연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길거리 식당을 열고 오직 '매출'로만 경쟁한다.

두 예능은 국내 요식업계 대가들이 계급장을 떼고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권위 파괴' 키워드와 다채로운 스토리텔링이 셰프 예능의 홍수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원조 쿡방인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해 스타 셰프들을 전면에 내세운 여행 예능까지, '요리사'라는 직군을 예능의 문법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예능적 재미와 화제성만을 좇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방송계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미디어 노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셰프들도 종종 눈에 띈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이 그들의 마케팅 수단이 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경쟁 유도로 셰프들 고유의 개성과 잠재력을 묻히게 하는 역효과도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김부장' 4회 만에 시청률 20% 돌파

드라마 김부장. SBS 제공

소지섭 주연의 액션 드라마 '김부장'이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 4회 시청률은 21.6%(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SBS 금토드라마 역대 시청률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첫 회 시청률 9.5%로 출발한 '김부장'은 2회 15.7%로 치솟은 뒤 3회 18.8%에 이어 4회에서 20%를 돌파하며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썼다.

4회에서는 김부장(소지섭)이 오랜 친구 사이인 성한수(최대훈), 박진철(윤경호)과 함께 딸 김민지(서수민)를 찾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김부장'은 특수요원 출신 아버지가 실종된 딸의 행방을 쫓기 위해 전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복수 액션 드라마다. 연합뉴스

'지하철 안내'·'짱구엄마'… 성우 강희선씨 별세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서울·부산 지하철 안내방송과 만화영화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엄마(봉미선)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성우 강희선(姜羲先·사진)씨가 지난 4일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만 65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경고, 서울예전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배우를 꿈꾸다 지도교수의 권유로 성우의 길을 택했다. 서울예전 2학년 때인 1979년 TBC 성우극회 10기로 입사했다가 1980년 방송 통폐합으로 KBS 성우 15기가 됐다. 2013~2016년 KBS 성우극회장, 한국성우협회 수석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첫 더빙 애니메이션은 '빨간 머리 앤(KBS)'이었다. 1980~1990년대 '주말의 명화', '토요명화' 등이 안방극장을 점령하던 외화 전성시대엔 샤론 스톤, 미셸 파이퍼, 줄리아 로버츠, 니콜 키드먼을 연기했다.

1996년부터 서울, 부산 지하철 안내 방송을 맡았다. 서울 1-8호선, 부산 1-4호선 더빙을 맡았다. 대구 지하철 광고에도 목소리가 등장했다.

젊은 세대에겐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엄마' 역으로 알려졌다. '맹구'도 담당했다.

고인은 2002년 KBS 성우연기대상 최우수외화연기상, 2005년 KBS 성우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 2018년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인은 2021년 대장암 간 전이 진단과 함께 시한부 2년 선고를 받았다.

항암 치료를 47번 받으면서도 짱구 극장판 녹음을 14시간30분 동안 진행했다. 또한 "지하철 안내방송은 병실에서 녹음한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6(월)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TV쇼 진품명품(재)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4:40 굿 굿바이(재)
15:00 현생리뷰(재)
15:30 1989, 두 번째 봄(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인생이 영화(재)

KBS2
4: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 브라질:노르웨이
17: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8: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 멕시코:잉글랜드
11: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12:00 인간극장 스페셜
12:40 영화가 좋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마카앤로니 3(재)
16:00 TV 유치원
16:30 세상의 모든 다큐
17:20 스튜디오 K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다큐멘터리 3일
21:30 말자쇼
23:00 토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재)

MBC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11: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1:45 까망과 베르의 푸드트럭2(재)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
13: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베베핀
17:30 구해줘! 홈즈 스페셜
18:0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2:50 심야괴담회 6

JIBS/SBS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플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2:00 SBS 12 뉴스
12:45 안녕 자두야 6
13:00 잘 먹고 잘 사는 법 플러스
14:00 뉴스브리핑
15:30 고향이 보인다
16:00 탑클래스
17:00 JIBS 저녁뉴스
17:10 시사이슈 결(재)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헌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아니 근데 진짜!
23:40 나이트라인

EBS1
8:20 한글용사 아이야
9:40 부모의 첫 성교육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13:25 EBS 평생학교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35 뽀롱뽀롱 뽀로로
17:10 페파 피그
18:20 고향민국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소리원정대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30 공연에 반하다
13:00 KCTV 13시 뉴스
13:30 어촌별곡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00 제주 입도조 뿌리를 찾아서
16:00 캠핑가자
17:20 네트워크 전국발굴
20:00 슈퍼푸드의 힘_A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6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들 덕을 본다. 재물운이 길하다. 48년 약속이 생기면 먼저 도착해 마중하면 나를 존경한다. 60년 낮엔 의욕이 저하, 저녁엔 생기가 넘친다. 야근할 일이 생길수도. 72년 돌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목적달성을 빨리 할 수 있다. 84년 기대나 공짜는 더 큰 욕심이 되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37년 가정에 불화조짐. 내가 먼저 양보 배려. 49년 흔들리면 의욕상실이 많이 초래되니 처음 결심이 지속되도록 유지. 61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몸이 바쁘다. 73년 하는 일에 희망이 있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 85년 윗사람의 의견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실함으로 신뢰를 만회할 때.

38년 활동력이 왕성해진다. 자식이나 아랫사람과의 교류가 있다. 50년 모임이나 즐거움이 계획되니 지출이 많아진다. 62년 몸이 분주하다. 외출 또는 모임에 갈 일이 생긴다. 74년 집안어른께 애·경사가 오니 준비를 미리하라.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긴다. 86년 취업이나 직장 문제로 분주함이 있다.

39년 하는 일이 풀리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 51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63년 문서 관련 업무로 몸과 마음이 바쁘다. 꼼꼼한 확인과 업무처리 필요. 75년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참고 인내함도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87년 할 일이 생긴다. 원칙과 예의를 가져라.

40년 만남을 소중히. 인연의 시작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52년 윗분으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인정받게 된다. 64년 명예의 실추와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다. 대응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도 지혜. 76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언행 조심해야. 88년 집중력이 오는 효율적 시간대를 활용하라.

41년 라이벌이 등장하는 격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매출은 저조. 53년 맹목적 신뢰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주변인의 말에 현혹 조심. 65년 상대를 밝은 표정으로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실익이 생김. 77년 취직과 업무에 관련된 것은 길하지만 이성문제는 차질이 생긴다. 89년 계획을 수립, 실천함이 필요하다.

42년 이동운 또는 자녀로 인한 일로 고민한다. 54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사소로운 일에 민감하다. 상처주는 말을 삼가하라. 66년 손재수 도난 우려되니 조심. 외출시 착각에 의한 분실 조심. 78년 이성간 마찰이 생기거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 90년 마찰 시비구설이 올 수 있으니 금전거래는 보류하는게 원만.

43년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에 신경써라. 55년 투자 시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 변화 시 신중하라. 67년 고부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 자제. 흉을 보지 마라. 79년 이성간 교제나 활발한 마음이 주위에 알려진다. 91년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용돈이 생기게 된다.

44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56년 새로운 계획이 오니 주위사람과 상의해 길을 모색하라. 68년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되고 결과가 함께 있어 길하다. 80년 미소가 아름다운 날, 화내지 않는 날로 의미를 부여하라. 92년 위장 또는 귀에 이상이 오거나 체력이 저하된다.

45년 자신을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시 윗사람이 칭찬을 한다. 57년 문서에 이득이나 영업에 이득이 따른다. 69년 후배나 동료간 친목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성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81년 명예 또는 문서에 변화가 오니 잘 대처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날. 93년 문서에 이득이 있고 초대받을 일이 있다.

46년 자기 감정조절이 필요하며 재물에 이익이 따른다. 58년 내 일보다 자녀문제로 생각이 가득차 있다. 자녀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70년 대세를 따르면 편하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출현해 경쟁한다. 82년 직장인은 호운이 오고 인정을 받는다. 자영업은 휴식 필요. 94년 용돈을 받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47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는 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59년 부모님이나 윗사람, 거래처의 일로 신경을 쓰게 된다. 71년 같은 업종이나 동료를 만나 즐거우나 큰 도움은 못된다. 83년 외부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가정에서는 불협화음. 조기 귀가하라. 95년 오늘은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자.